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 중앙임원 11.19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 순회

한농연중앙연합회 김흥기 수석부회장과 신명운 사업부회장은 11.19 전국농민대회 선전과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차량을 타고 전국순회에 나섰다.

김흥기 수석부회장은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을 신명운 사업부회장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11.19 전국농민대회 선전 가두방송과 시군회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회장 및 회원들과 만나며, 오는 11월 19일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공청회에 김흥기 수석부회장 참가하여 한농연 입장 밝혀

지난 11월 3일 한농연중앙연합회 김흥기 수석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공청회」에 참가하여 한농연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민들의 복지 및 교육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써 지난 9월 5일 이양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정경제부를 관계자를 비롯하여 허상만 농림부장관, 장원석 농특위원장 및 3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한농연 김흥기 수석부회장은 공청회에서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고 말하고 지난 2002년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특별법이 무산된 예를 제시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특별법 역시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주 7~8대 한농연중앙회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한농연중앙연합회 7.8대 임원을 역임했던 황창주 회장이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받

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의원 5명이 탈당해 열린 우리당으로 당직을 옮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후보자 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황창주 전 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황창주 의원은 지난 11월 1일부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산하연합회소식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한농연회원 '선전'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지방의회 재·보궐선거에서 한농연회원이 11명이나 당선되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전으로 한농연은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70명 등 총 288명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을 배출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의회 정해준(횡성군연합회 직전회장)님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연구송(증평군연합회 현 회장)님, 단양군의회 허일수(회원)님, 충청남도 계룡

● 한농연회원 지방선거 당선 현황

구 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계
경기		2	36	38
강원		2	20	22
충북		2	20	22
충남		5	32	37
전북		2	33	35
전남	1		34	35
경북		3	52	55
경남			30	30
제주			1	1
1특6광	1		12	13
계	2	16	270	288

시의회 이정기(충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님, 김정순(충남도연합회 감사)님, 이지용(회원)님, 강홍식(회원)님,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노경환(회원)님,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고두종(회원)님, 남종식(청송군연합회장)님,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정임식(마암면회 초대회장)님이 각각 당선되었다.

의성군연합회 농산물품질관리원(의성군출장소)의 주먹구구식 쌀 작황피해조사에 강력 반발

한농연의성군연합회(회장 홍병기) 임원 및 회원 11명은 지난 10월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금년도 쌀 작황조사발표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성출장소 항의방문에 나섰다.

이번 항의방문은 고성군의 쌀 작황이 평균적으로 30%이상 감소되어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관원 의성군출장소측이 이를 축소하여 보고했다는 것이다. 농관원 의성군출장소측은 의성군의 금년도 쌀 예상 수확 감소량은 8.9%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성군연합회 홍병기 회장은 “이번 쌀 작황조사통계는 정부의 구미에 맞춘 짜맞추기식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업통계가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의방문 과정에서 농관원측과 물리적 마찰이 빚어져 의성군연합회 임원 3명이 긴급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지난 5일 농관원측의 고소 취하로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성군연합회는 “농관원의 작황피해조사는 시·도단위로 표본조사되고 있어 의성군의 실제 피해 집계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농관원의 반농민적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연합회 불우이웃에 대한 훈훈한 농심 전달

의왕시연합회(회장 박재호)는 지난 10월 29일 의왕시 소재 2천여평 규모의 휴경지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벼베기를 실시했다.

이날 거둬들인 벼는 모두 4천kg 가량으로 수익금은 관내 요양원, 복지시설 등 주위의 불우이웃에게 훈훈한 농심과 함께 전달되었다.

한편, 양평군연합회는 「가족 한마당 큰 잔치」행사에서 12읍면「사랑의 쌀 모으기」를 전개 했다. 매년 3개면을 선정하여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 10월 24일(금) 개군면, 양동면, 청운면의 독거노인에게 전달하였다.

경북도연합회, 투쟁선포식에서 삭발식과 혈서로 투쟁의지 불태워

고 이경해 열사 49재를 맞아 거행된 '400만 농민 경북 투쟁선포식'에서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박노옥)를 포함한 경북지역농민연대가 삭발식과 혈서를 쓰는 등 농권수호의 굳은 결의를 다졌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지난 10월 29일 경북도청 앞에서 전농경북도연맹 등 4개 농민단체와 함께 고 이경해 열사 49재 추도와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박노옥 회장은 선포식장에서 "이 경해 열사의 뜻을 받들어 11월 19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개방농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선포식에 이어 박노옥 회장 및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임원 등 참가자 10여명이 삭발식을 거행하여 농권사수를 위한 범국민 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우정규 회장을 비롯한 여성농민연대는 '농업사수' 글귀를 혈서로 써 선포식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되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전국농민연대 11.19대회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식 개최

- 전국농민연대 대표자 지역 순회 방문 나서 -

지난 10월 29일 전국농민연대는 이경해 열사 49재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11.19대회 투쟁선포식과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과 11.19 전국농민대회에서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민연대는 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회관 및 도청에서 이경해 열사 추모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고 11월 19일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이경해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농민연대가 요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 농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해 열사 추도식을 갖고 전북 장수의 이경해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또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도 각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추도식 및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경해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11월 19일 대회에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지역동향 파악 및 11.19 전국농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1

월 6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일정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에 돌입했다.

전국 동시다발 11.19 투쟁선포식 전개 현황
전국 곳곳에서 8개도, 42개시군, 4,000여명 참가

① 경기도

- : 경기도농민연대는 소속 단체장들과 임원 및 경기도농업단체장,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경혜 열사 49재 헌화 및 분향 및 400만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 전개
- : 시군지역은 광주, 김포, 용인, 안양, 안산, 군포, 시흥, 의왕, 과천, 광명시, 연천군 등 11개 시군에서 총 160여명의 규모로 투쟁선포식 전개!

② 강원도

- : 도내 5개권역으로 나뉘(춘천/원주/강릉/속초/삼척) 도내 각 농민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선포 기자회견 진행

③ 충청도

- : 충청농단협(한농연, 전농, 전여농, 한여농)은 오전 11시 충청도청앞 광장에서 60여명의 규모로 투쟁선포식 전개

④ 충남도

- : 충남농민연대(한농연, 한여농, 전농,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농기협, 가농)는 충남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선포 기자회견 진행
- : 시군지역은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등 110여명의 규모로 선포식 전개, 천안시는 오는 11월03일 개최 예정

⑤ 전북도

- : 전북농민연대(한농연, 전농, 한여농, 전여농, 4H농촌지도자연합회)는 하루전 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9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식 전개 후 묘소 참배
- : 장수군농민연대는 장수군청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개최

⑥ 전남도

: 광주전남농민연대(한농연, 전농, 전여농, 한여농, 가농)는 조선대학교에서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포식 및 결의대회 전개

⑦ 경북도

: 경북농민연대(한농연, 한여농, 전농, 전여농 중심)는 도청앞에서 소속단체장을 비롯한 임원단 24명이 추모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삭발식(한농연과 전농)과 혈서(한여농과 전여농)로 결의

: 시·군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연천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 울진군 등에서 1,005명의 규모로 동시다발 선포식을 전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 영덕군 시임원 및 읍면회장 삭발

⑧ 경남도

: 경상남도농민단체협의회(한농연, 한여농, 전농, 전여농, 유기농협회, 농촌지도자협회, 대한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낙우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농가주부모임, 경남새농민회, 가톨릭농민회, 후계자경남도지회)는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선포식 전개

: 시·군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등지에서 총 245명의 규모로 동시다발 선포식 전개

⑨ 제주도

: 제주도 농민단체(한농연, 전농, 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협회, 생활개선회, 유기농협회, 제주과수협회, 4H연맹)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민회관에서 선포식 전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준) 발족

학교급식의 안전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와 안전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2년 11월 4일, 전국의 99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운동연대의 틀을 형성한 이후 지난 11월 11일 서울시의회 별관 '열린의회 교실'에서는 더욱 체계화·조직화된 운동본부가 발족식을 맞이했다. 전국의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 학생, 농민, 노동자, 학자, 교육위원, 의원 할 것 없이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운동본부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